



“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사람들 2: 간음하지 말라”
(마태복음 5:27-32)

■ 들어가는 말

지뢰밭 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
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?

■ 말씀 속으로 - 들어가 봅시다. (마 5:27-32)

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
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
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
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
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
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

1.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?

=> 행위로서 간음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.

2.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

=>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.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 말씀 하셨습니다.

3.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29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
30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

4. 29-30절은 일종의 과장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 해야 할 정도로 죄를 끊어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?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=> (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.)

5. 이성을 대할 때, 각종 서적이나 영상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? 간음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하고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

=> (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.)

■ 기도

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아버지.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나 여전히 내 눈과 손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.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닦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. 더 이상 죄에게 굴복 당하지 않고 기꺼이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초 청 합 니 다

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
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,
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,
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,
필요한 때입니다. 이 모든 것을
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.

예수 그리스도!

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
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
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.

“온양삼일교회”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(신앙)의 이야기가 있나요?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.

